

동부, 벤젠 수입 대폭감축 계획

수입비중 70%에서 60%로 ... 내수시장에 영향 미칠 듯

동부화학(대표 김준기)이 96년 SM용 벤젠 수입을 줄일 계획이다. 동부화학은 현재 일본의 2개기업과 벤젠 계약가격을 협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동부화학은 전체 벤젠 수입량의 70%를 차지하고 있으나 50%수준으로 낮춘다는 계획아래 올해는 60%수준으로 수입을 줄일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동부화학의 주 공급기업인 일본의 Tailyo Oil과 Mitsubishi Oil은 95년 판매했던 것보다 적은 물량을 수입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 국내 대부분의 SM 생산기업들도 벤젠수입을 14%가량 줄일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국내의 벤젠 공급부족으로 수입에 의존하던 물량이 내수구매로 대체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95년 중반이후 국내 벤젠 공급은 SM기업들의 수요를 충족시킬만큼 여력이 있는 상태가 아닌 것으로 분석돼 수급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이러한 우려에 대해 국내 아로매틱기업들은 96년들어 신규공장 가동이 계획되어 있어 공급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신규 SM 생산기업들은 벤젠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형편이다. 96년 2/4분기 신규 SM공장을 가동할 예정으로 있는 삼성종합화학은 벤젠수급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삼성은 97년 20만톤규모의 신규 벤젠공장을 가동 예정으로 있다. 96년 2/4분기에는 현대정유의 20만톤규모 공장이 가동 예정으로 있으며, 96년말에는 유공의 20만톤규모 공장도 가동될 예정이다.

한편, 그동안 동부화학의 수입가격이 국내 벤젠 계약가격 결정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던 점을 감안, 동부의 수입량 감축이 벤젠 가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 주목되고 있다.

국내 벤젠 계약가격은 USCP+α로 결정되며 올해 프리미엄은 갤론당 10~20센트로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95년에는 프리미엄이 갤론당 7~8센트 수준이었다.

96년 벤젠 계약가격이 인상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미국의 최근 벤젠 스파트가격은 비정상적으로 인상되어 갤론당 90센트이상에 거래되고 있다.

<화학저널 1996/2/5>

